

전남 시·군별 인구 증감 회비 교차

5년새 무안 12500명·광양 7400명 늘어

나주 7800명·고흥 9900명 감소 '초비상'

전남지역 22개 시·군별로 인구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확인히 엇갈리면서 회비가 교차하고 있다. 인구가 늘면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규모도 커지는 등 행복한 고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로 비상이 걸린 곳도 적지 않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남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91만2509명(외국인 제외)으로, 지난해 말 191만8485명에 겹쳐 5976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남지역 인구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전남도가 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을 대상으로 펼친 '광양살기 운동', '주소갖기 운동' 등의 정책도 도움이 됐다. 광양시는 15만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지방교부세·정부지정보전금이 확대되면서 세수가 150억원 가량 늘어나고 행정조직도 현행 2국→3국 체제로 바뀌어 최고 100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민등록상 인구는 15만27명으로, 지난 2008년 3월 14만명을 넘어서 이후 3년 8개월여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

광양의 인구는 지난 2005년 13만 8098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다. 2006년 13만8237명→2008년 14만1388명→2009년 14만3461명→2010년 14만 5512명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의 공장 확장 및 관련 기업 유치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여기에 맞춰 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교육·환경 및 산단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광양시측 설명이다.

광양시가 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을 대상으로 펼친 '광양살기 운동', '주소갖기 운동' 등의 정책도 도움이 됐다. 광양시는 15만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지방교부세·정부지정보전금이 확대되면서 세수가 150억원 가량 늘어나고 행정조직도 현행 2국→3국 체제로 바뀌어 최고 100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 최근 5년간 시·군별 인구변동							(단위:명)
지자체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5년간 증감
목포시	242,988	241,679	243,312	245,651	244,339	245,422	2,434 ▲
여수시	301,389	297,489	295,439	295,133	293,546	293,488	-7,901 ▼
순천시	270,934	269,940	270,380	269,429	269,516	272,620	1,686 ▲
나주시	97,980	96,417	95,439	92,884	90,875	90,118	-7,862 ▼
광양시	138,098	138,237	138,865	141,388	143,461	145,512	7,414 ▲
고흥군	83,830	81,068	78,589	76,605	75,127	73,924	-9,906 ▼
해阳군	86,238	84,338	82,529	81,043	81,148	79,579	-6,659 ▼
무안군	61,915	61,766	63,674	66,598	72,417	74,475	12,560 ▲

〈전남도 제공〉

있다. 여기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종합병원을 비롯해 백화점, 극장, 호텔 등 경쟁력 있는 정주 여건 조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와 남암신도시를 포함한 무안군도 도정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를 북쪽으로 누리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05년 24만2988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24만5422명까지 증가해 5년간 2434명의 인구가 늘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말 6만 1915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7만 4475명으로 5년 만에 1만2560명이나 급증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5년간 인구 증가세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가 7만5479명으로 나타나 전남경찰청 등의 이전 효과까지 누리고

김진숙 기자 dok2000@kangju.co.kr



승호상작 '광주비엔날레 지원센터'

세계적인 건축가 승호상씨가 설계 디자인 자문을 맡은 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공간과 전시실, 자료실, 아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angju.co.kr

전남 친환경쌀 83억 납품계약

'서울 쌀박람회'서 호평

전남 대표 브랜드쌀과 친환경 쌀이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12일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년 서울 쌀박람회'(KOREA FOOD EXPO)에 참여해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쌀'과 친환경 쌀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쌀박람회에는 전국 우수 브랜드쌀로 죄다 선정된 해남우수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과, 나주 동강농협 '드림생미', 보성농협 쌀법인 '녹차마인 보성쌀' 등 10개 우수 브랜드쌀과 나주 마한농협의 '햇살좋은 쌀', 영광농협 쌀법인 '사계절이사는집', 함평농

협 쌀법인 '나비햇살미' 등 10개 친환경 쌀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해남 옥천농협은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농산, 행복을과는 사람들 등에 27억원, 영광농협 쌀법인은 롯데백화점 등에 23억원, 나주동강농협은 한화호텔&리조트 등에 30억원 등 총 83억원 규모의 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쌀박람회를 계기로 학교급식 시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남 대표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학교급식 등 소비자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angju.co.kr

부산지검 광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19만 원 고강도 납작형 구조물을 상대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광천동 현대건설 호남지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능성을 한 현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재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접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위탁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저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업설명회에서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과 지역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문 건설협회와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비, 건설 자체협회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U대회 선수촌 건립 취지와 업체들의 참여 기준, 선정방법 등을 설명한 뒤 공정별로 하도급업체 참여 신청을 받아 현대건설 내부 선정방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U대회 선수촌은 현재의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15~33층, 35개동, 372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총행기자 redplane@kangju.co.kr

히말라야 또 비극... 김형일·장지명 추락사

출라체 북벽서 시신 수습

히말라야 출라체(6440m) 북벽을 탐험 중이던 김형일(43) 대장과 장지명(32·이상 K2의스트림 팀) 대원이 등반 도중 추락사했다.

대한산악연맹과 후원의류업체 K2 등은 출라체 원정대 김형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 등 2명이 출라체 북벽을 탐험하던 도중 11일 오후 4시45분(현지 시간) 추락사했으며 시신을 수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신은 베이스캠프(해발 4,500m~5,000m)에 남아 있던 탐험대의 이일영 대원과 임일진 대원 등

이 수색에 나서 발견했다. 비극을 맞은 2명은 지난 10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박영석 대장 실종사고'가 발생하자 출라체를 탐험하던 일정을 바꿔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의 1차 구조 활동에도 참여했다. 수색 작업을 벌인 이들은 한국에서 급파된 김재봉 대한산악연맹 전무이사, 김재수 대장 등 2차 구조대가 네랄현지에 도착하자 안나푸르나에서 출라체로 돌아갔으나 끝내 북벽을 다 오르지 못하고 출라체에 잠들고 말았다.

이들은 출라체를 36시간만에 왕복하겠다는 목표로 원정길에 나섰으며 8부 능선(약 5100m)에 올랐을 때쯤 봄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사고를 당한 고 박영석 대장처럼 정상에 오르기보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등로주의(登路主義)를 지향했다. 탐험대는 베이스캠프에서 정상을 공격할 때 텐트 없이 한끼 식사 분량에 몇 미터는 식량만을 준비한 채 목표에 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라체 북벽은 험준하기로 유명하며 지난 2005년에는 출라체 북벽을 탐험하던 박정현 대장 등이 조난당했다 5일 만에 구조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개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안군 남암신도시에 새 청사를 마련, 오는 14일 개원식을 갖는다.

총 사업비 176억원을 들여 1만3268㎡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 신청사는 미생물과 등 6개 연구실에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질량분석 기 등 400대의 보건환경연구분야 초정밀 장비를 갖추고 있다.

광주시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광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11년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심사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건강관

리실 운영, 성별영향평가 실적 부서장 BSC 성과관리 반영, 일용직원의 공휴일 유급전환 등이 인정받았다.

자치구에서는 남구청과 북구청, 기업에서는 광주은행 각각 가족친화 우수기관과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angju.co.kr

기부금 5억이상 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앞으로 기부금 관련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채용공고

기업 홍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아티에프(www.alotv.kr)에서 회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구분	모집부문	인원	자격 요건
경력	웹디자이너	1명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HTML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신입	영업	약간명	영업활동에 관심있으신분
경력	리	1명	경리, 회계 업무기능자

2. 공동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이 무관)
나. 월디자이너 및 경리직은 여자에 한하여, 영업직은 남, 여 모두 지원 가능
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학원연봉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포토풀리오(URL링크 포함)

4. 서류접수

가. 기간 : 2011. 11. 14(월) ~ 11. 22(화)
나. 방법 : E-mail 접수(support@alotv.kr)

5. 전형절차